2023. 5. 10.(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9일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기반과장	최종익	2133-8460
G밸리관리팀장	김동현	2133-8468
담 당 자	윤인향	6734-6907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8쪽

G밸리산업박물관, 2023년-1973년 : 일과 배움 사이 청춘의 성장통 담은 기획전 연다

- 5.10.(수)~7.16.(일), G밸리산업박물관 3회 연례기획전 〈구로,청춘 2023: 성장통〉 개최
- 서서울문화네트워크(박물관-구로·금천문화재단) 첫번째 공동사업··구로공단 노동자 25인 인터뷰에서 출발
- 6월 목요일엔 뮤지엄 런치박스(6.1), 차 마시는 오후 해설(6.8/15/22)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2023년 G밸리 직장인의 삶이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갓생'을 꿈꾸고, '욜로YOLO'를 지향한다면, 1970~80년대 구로공단 시절의 청춘의 삶은 어땠을까. 공장일이 끝나면 야간학교를 다녀서 졸업장을 따고, 기술을 익혀 잔업 없는 회사로 이직을 준비했던 청춘의 성장통을 담은 기획전이 열린다.

※ 갓생이란 '갓'(God)과 '인생(生)'을 합친 합성어로,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 또는 일상에서 소소한 성취감을 얻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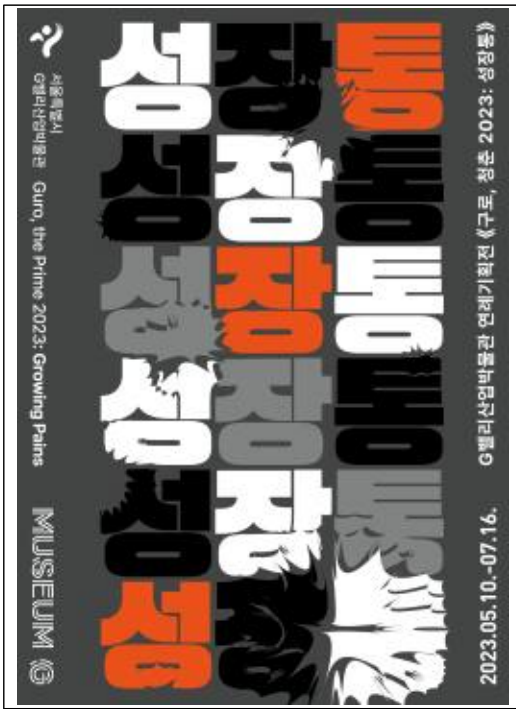
※ 욜로란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로, '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이다.

□ 노동자의 교육과 자기계발을 주제로 일 년 동안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서울시립 G밸리산업박물관(서울시 구로구 G타워 내)이 세 번째 연례기획전《구로, 청춘 2023: 성장통》을 선보인다.

□ **《구로, 청춘 2023: 성장통》은 구로공단 노동자 25인 인터뷰와 조사연구를 묶은 아카이브에서 시작되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끝없는 자기계발, 성장, 배움의 긍정과 피로를 4인의 작가(이설, 이진영, 조재영, 컨템포로컬)가 설치, 영상, 미디어아트로 풀어냈다. 전시에는 구로공단 노동자의 배움부터 지금 청년들이 처한 자기계발 부담, 현대인에게 진정한 배움의 의미가 담겨있다.**

○ G밸리산업박물관(서울시 구로구 G타워)은 국내 최초의 산업박물관인 동시에, 서울 서남권 유일 공립박물관으로 서서울의 문화를 '생산'한다. 수출산업을 이끈 구로공단의 역사부터 첨단산업과 디지털로 무장한 G밸리 젊은 노동자들의 문화 형성을 위해 역사와 예술, 연구와 기록 아카이브를 통한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 《구로, 청춘》 시리즈는 도시와 건축, 생활과 문화, 산업과 기업, 노동 일자리, 이주라는 5가지 주제를 돌아가며 매년 진행되는 연례기획전이다. 올해는 생활과 문화에 해당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 시 명	《구로, 청춘 2023: 성장통》 Guro, the Prime: Growing Pains
전시기간	2023. 5. 10.(수) ~ 2023. 7. 16.(일)
전시장소	G밸리산업박물관 기획전시실
주관주최	서울특별시 G밸리산업박물관
전시협력	서서울 문화 네트워크 (G밸리산업박물관, 구로문화재단, 금천문화재단)
전시부문	설치, 영상, 인터랙티브 아트 등
전시작가	이설, 이진영, 조재영+지지추, 컨템포로컬
기본정보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G타워 3층 화-일요일 10:00~18:00, 무료관람 (매주 월요일 휴관)

○ **이설 작가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조화를 프레넬 렌즈를 통해 각각의 모양과 빛을 쏟아내는 톱니바퀴로 표현한 '기지개' 시리즈(2023)를 선보인다.

○ **이진영 작가**는 수많은 데이터가 과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현대에서, 성장과 성공 결과는 오롯이 개인의 부담이 되는 사회를 지적한다. 콘크리트와 폴리스틸렌처럼 산업현장의 묵직한 물성을 이용해 벽돌처럼 쌓아 올린 '데이터(2023)'를 통해, 가볍게 흩날리지 않은 성장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 **조재영 작가**는 프로젝트그룹 지지추(GG-chu)와 공동작업을 통해 배움의 의미를 추적한다. 배움이란 나와 다른 이질성을 현재의 나에게 '+1' 하는 작업으로, 일정 기간마다 서로의 그림을 보고 새로운 사유를 덧붙이며 '끝나지 않는 이야기(2023)'를 만들고 배워갔다. 360도로 돌아가는 새로운 그림 속에서 관람객만의 이야기가 생성되듯, 배움을 향해 무한히 걸어가는 과정이 펼쳐진다.

○ **컨템포로컬(ContempoLocal)**은 '끝말잇기(2023)'라는 놀이 형식의 비디오를 통해 '구로공단' 시절에서부터 지금의 'G밸리'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노동 현장과 배움에 대한 열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탐구한다. 노동자에서 학생으로 끝나는 낱말 사이에서, 역사와 개인과 사회의 요소가 우연한 방향으로 교차와 대비를 반복한다.

□ **이번 전시는 G밸리산업박물관, 구로문화재단, 금천문화재단이 참여한 '서서울 문화 네트워크'의 첫 번째 공동사업이기도 하다. 금천문화재단이 추천한 조재영, 컨템포로컬과, 구로문화재단이 메이크구로 창작소 레지던시에 참여를 통해 추천한 이설, 이진영 작가 총 4인이 G밸리산업박물관이 제공한 인터뷰 아카이브와 강연에서 영감받아 새로운 G밸리의 유산이 될 여섯 작품을 탄생시켰다.**

□ 또한, 《구로, 청춘 2023: 성장통》을 풍성하게 만들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이 6월 한달간,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 G밸리산업박물관은 뮤지엄 런치박스(1일), 직장인·학부모·시니어 등 그룹을 대상으로 차 마시는 오후 해설(8,15,22일 총 3회)를 운영하며, G밸리 사람들의 성장과 전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최종익 서울시 전략산업기반과장은 “서서울 문화 네트워크의 공동사업으로 추진된 〈성장통〉 전시를 통해, 구로공단 역사를 계승하고 G밸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G밸리산업박물관과 시민 간 적극적인 소통의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G밸리산업박물관 연례기획전 《구로, 청춘 2023: 성장통》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G밸리산업박물관 블로그(wblog.naver.com/museumg)와 인스타그램(instagram.com/museumg_official)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문화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https://yeyak.seoul.go.kr/)을 통해 5월 중순 참여신청을 받는다. (문의 02-6734-6907)

붙 임 1. G밸리산업박물관 연례기획전《구로, 청춘》2021~2022
2.《구로, 청춘 2023: 성장통》참여작가 작품
3.《구로, 청춘 2023: 성장통》참여작가 프로필

붙 임 1 **G밸리산업박물관 연례기획전《구로, 청춘》2021~2022**

G밸리산업박물관 1회 연례기획전 《구로, 청춘 2021: 내 일처럼》

G밸리산업박물관 2회 연례기획전 《구로, 청춘 2022: 공장도시》

붙 임 2 《구로, 청춘 2023: 성장통》 참여 작품

이설〈기지개〉시리즈, Mixed Media,
W20~50 x D20 x H25 cm, 2023

이진영〈데이터〉Concrete, Plaster, Variable Size, 2023 (부분사진)

컨템포로컬〈끝말잇기01〉Single Channel Video, 2023 (부분사진)

조재영+지지추〈끝나지 않는 이야기〉Mixed Media, W2750 x D3500 x H2200 cm, 2023 (부분사진)

붙 임 3 G밸리산업박물관 《구로, 청춘 2023: 성장통》 작가소개

이설 LEE Seol

미디어와 기술에 관심이 많은 이설 작가는 사회의 다양한 면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며, 사회의 다면성을 만들어내는 우연과 필연을 작품에 녹이고자 한다. 이설에게 인터랙티브는 관객이 미디어를 통해 작품에 말을 걸고, 그를 통해 작업이 구현되는 방식이다. 이 상호 핑퐁 속에서 작품은, 완성이 아닌 진행의 과정으로 순간 순간 의미를 가진다.

이진영 LEE Jinyoung

조각과 설치를 주로 다루는 이진영 작가는 디지털로 빠르게 생성되고 폐기되는 문명[character;문자]과 대립할 수 있는, 콘크리트와 시멘트같이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물질들에 관심이 많다. 현재를 구성하는 가치들에 대해 곱씹는 이진영의 작품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순과 대립 속에 형성된 대상들에게 질문을 던지듯 생각하는 과정이다.

조재영 CHO Jaiyoung

매체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는 조재영 작가는 우리들 인식 과정과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재영의 작품은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다. 인간의 인식이 표출되기까지 그것과 관계 맺고 있는 각자의 현실, 집단과 사회의 문제에 관해 질문한다.

+ 지지추 GG-chung

조재영 작가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과 '자기계발'에 대해 고민한 지지추는 김유리, 박정향, 손유나, 이지현으로 구성된 아티스트 그룹이다. 이들은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을 그들만의 유머로 풀어내며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해오고 있다. 관종적 비주류를 표방하며 예술가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고민, 자본주의에서의 예술노동의 가치에 대해 고민한다.

컨템포로컬 ContempoLocal

컨템포로컬은 윤주희, 최성균의 두 작가의 공동 프로젝트의 이름이다. 컨템포로컬은 미디어와 설치 등을 종횡하며 중심부에 의해 배제당한 타자가 아닌, 지역(Lacal)의 동시대성과 현존을 이야기한다. 이들의 예술은 작품을 넘어 금천 시흥동 복합예술공간 '범일운수종점Tiger1'에서 현실이 된다.